

## 여성 노동자, 재생산 노동, 가족 - 1990년대 초 노동소설 속 '여성노동해방'의 전망

배 하 은\*

### 요약

1980년대 말 여성해방문학의 부상에 따라 전환기 노동소설에서는 사랑과 여성이라는 소재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과 착취, 사랑의 제도화된 형태인 결혼과 가정이 여성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젠더화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재생산 노동의 차원 등 그간 은폐되었던 노동자 계급 안의 성차별 문제를 발견하고 가시화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정지아의 「동지의 집」의 경우, 기혼 여성 노동자가 재생산 노동 영역에서 겪는 착취와 억압, 폭력의 문제를 전면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투쟁 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기혼 여성 노동자의 가족주의적 의식의 퇴행과 한계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효과를 낳는 한편, 가부장주의적 남성의 여성 착취를 자본가의 노동력 착취와 병치하며 노동자 계급 안의 젠더화된 지배-피지배의 권력 관계를 재현한다.

한편 차주옥의 『함께 가자 우리』와 이남희의 「목마른 것은 싫다」에서는 남성 노동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노동소설에서의 여성 노동자 섹슈얼리티 재현이 중요한 변화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가 이중적으로 억압되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동거, 임신, 낙태(임신중단) 문제의 배경에 자리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재현함으로써 여성 노동자의 사회·문화적인 박탈을 섹슈얼리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제시한다. 아울러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해방에 관하여 중산층 여성이나 여대생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 조건에 내재함을 시사하는 지점에서는 교차성의 사유가 발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기초학부 조교수

견된다.

이와 같이 여성해방문학론을 전유하는 전환기 여성 노동문학 작가들의 소설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현실과 유리된 리얼리즘 논쟁 속에 뒤얽혀 방향을 상실한 노동소설에 새로운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여성문학·여성주의 문학과 접점을 이루며 1980년대와 1990년대 문학 사이의 단절이라는 문학사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1980년대 노동문학과 1990년대 여성문학을 잇는 한편, 계급 속 젠더와 섹슈얼리티, 여성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교차하여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된다.

주제어: 여성해방문학, 1990년대 노동소설, 여성 노동자, 재생산 노동, 섹슈얼리티, 여성 노동문학, 교차성

목차

1. 노동문학의 위기론과 여성해방문학의 영향력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재현과 재생산 노동 영역의 가시화
3.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해방과 투쟁: 결혼과 가족의 딜레마
4. 결론: 노동자 계급을 젠더로 미분하기

## 1. 노동문학의 위기론과 여성해방문학의 영향력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로 한 시점부터 본격화된 노동소설의 활발한 창작에 힘입어 노동문학은 실로 1980년대 문학의 지배적인 양식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윽고 1980년대 말 갑작스럽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던 노동문학은 금세 위기론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0년 가을호 『실천문학』의 특집 주제인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는 그러한 위기론에 대한 반응이었다. 1990년대 초 리얼리즘 논쟁을 촉발시킨 이 특집의 머리글에서 윤지관은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미국 및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탈산업사회 자본주의적 논리의 확산, 그리고 이에 따른 포스트모더니즘 문예 이론 및 사상의 도전에 직면한 민족·민중문학이 리얼리즘의 이론적 심화와 실천적 과제에 대한 모색을 통해 응전해야 함을 주장한다.<sup>1)</sup> 노동문학을 둘러싼 현실의 변화에 맞서 다시 한번 리얼리즘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이들은 결국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독점자본 및 독재권력과의 싸움을 통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으며, 문학에서 그러한 투쟁의 실천은 “노동계급이 변혁의 주도 세력으로 부상하게 된 80년대 후반의 사회현실과 이를 발판으로 한 과학적 변혁이론의 도입에 뒷받침받고 있”는 리얼리즘론의 “전제” 하에서 “유효”하다는 논리를 펼쳤다.<sup>2)</sup> 노동문학을 둘러싼 현실 상황이 급격히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변혁 운동의 노동자 계급적 헤게모니에 대한 주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윤지관의 글에서는 반핵·반전운동, 환경운동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다변화된 운동 방향으로 여성해방운동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완고한 민족·민중문학론자들조차 이 새로운 흐름의 운동이 갖는 의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상당했음을 시사한다. 기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여성해방운동은, 특별히 문학 영역에서 1984년 결성한 여성운동 단체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사연구회의 무크지 『여성』(이후 『여성과 사회』로 제호 변경) 동인 그룹의 활동을 통해 여성해방문학의 이론 수립과 비평의 확산을 전개하며 문학운동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다.<sup>3)</sup> 또한 1988년 민족문학작

1) 윤지관, 「머리글: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 1990년 가을호.

2) 위의 글, 203-204면.

3) 『또 하나의 문화』와 『여성』이 여성해방문학운동을 이끌어 간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선행 연구 참조. 이해령, 「빛나는 성과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가회의에서도 『여성운동과 문학』을 발간하며 기층 여성 노동자의 주체적인 삶과 투쟁을 담은 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만큼 그 영향력은 상당했다. 윤지관은 그의 글에서 여성해방운동 역시 “리얼리즘의 구도 속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990년대 초에 이르면 여성해방문학은 리얼리즘 안에 쉽게 흡수·종속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sup>4)</sup> 오히려 여성해방문학은 노동문학을 지배하던 리얼리즘론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며 1990년대로 돌입한 노동문학의 굴절과 변형에 영향을 끼쳤다.

1990년대 초 노동소설 작품과 비평 사이의 괴리는 여성해방문학의 영향력이 징후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1980년대 노동문학에서는 비평이 창작보다 앞서 일종의 지도적인 위치를 점하며, 작품의 주제, 이념과 세계관, 인물과 배경의 구체적인 형상화 방식, 그리고 소설의 경우 사건 전개 패턴에 이르기까지 작품의 거의 모든 층위를 규율한 측면이 있다. 리얼리즘론은 그러한 지도적 비평이 고도로 이론화된 버전인데, 1980년대 후반 노동소설에서는 비평과 작품이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1990년대 초 노동소설 작품들은 비평의 리얼리즘 논의에서 비껴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한 괴리는 일찍이 당대 노동문학 비평가 중 한 명인 이재현이 1990년대 노동소설의 새로운 흐름으로 사랑과 여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변화를 통해 포착한 바 있다. 그는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가 흔들리면서 나타난 “문학의 위기, 민족문학의 위기, 소설의 위기”를 진단하는 가운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노동소설 작품이 동지애에서 벗어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거나 이른바 진보적 사회변혁 세계관 안의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새로운 경향을 선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sup>5)</sup> 김영

4) 윤지관, 앞의 글, 203면.

5) 이재현, 「희망과 연대의 존재로서 노동자계급의 삶과 희망—90년대 노동소설의 몇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1992년 여름호, 248-251면.

혜와 오은영 역시 「노동문학에 그려진 여성과 사랑」에서 1990년대 초 노동소설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연애담을 거론한다.<sup>6)</sup> 남성 노동자 중심의 대단위 사업장을 배경으로 노동조합 결성 과정 속 파업과 투쟁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노동소설의 서사는 이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논의는 연애를 결혼과 가정으로까지 확장시켜 노동자 계급의 삶에서 이러한 소재가 과연 온당하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점까지 나아간다.

이처럼 실제 소설 작품에서는 리얼리즘 논쟁에 골몰해 있던 민족·민중문학의 주류 비평과는 대조적으로, 당시로써는 혁명이라는 역사적인 거대 담론과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던 노동자의 일상 속 사랑과 여성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하는 변화가 발견된다. 그리고 이후 본론의 논의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겠지만, 여성 노동문학 작가들의 소설 텍스트에서 사랑과 여성이라는 소재는 작업장과 투쟁의 장 안팎에서 벌어지는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과 착취, 사랑의 제도화된 형태인 결혼과 가족이 여성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젠더화된 억압과 착취, 그리고 재생산 노동의 차원 등 그간 은폐되었던 노동자 계급 안의 성차별 문제를 발견하고 가시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노동소설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난 사랑과 여성 문제의 천착은 노동문학에 투입한 여성해방문학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초 노동소설에 나타난 그러한 중요한 변화를 여성해방문학의 담론에 비추어 보며, 특별히 여성 노동문학 작가들의 소설 작품에서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이 재현되는 양상으로부터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가 1990년대 노동(문학)운동의 새로운 과제이자 전망으로 떠오르게 되었음을 규명한다. 최근 1990년대 문학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6) 김영혜·오은영, 「노동문학에 그려진 여성과 사랑—최근 장편노동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가을호.

1990년대의 페미니즘 운동, 페미니즘 문학 및 비평 담론이 (남성중심주의적인) 기성 문학의 개념과 문학 제도, 문학장의 역학 관계와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1990년대 문학이 새롭게 재편되었음을 규명하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그런데 노동문학의 경우 이러한 연구 경향에서 소외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성중심주의적 민족·민중문학론 구속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노동문학의 테두리 안에서 여성주의적 사유와 문제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으리라는 통념이 자리하고 있는 탓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민족·민중문학 진영에 속해 있던 『여성운동과 문학』의 경우 남성중심주의적 사회변혁 운동론에 여성주의를 기계적으로 결합시켜 여성해방으로서의 문학운동이라는 애초의 방향성을 상실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했다.<sup>8)</sup>

따라서 민족·민중문학 진영의 지식인 비평가들이 제출한 작품 해석과 실제 여성 노동문학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 텍스트를 서로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 비평은 민중 여성 또는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주요하게 다루는 작품에 대해서도 젠더의 문제는 간과한 채—또는 보지 못한 채—계급환원적인 해석과 평가로 일관하곤 했다. 리얼리즘 논쟁이 여전히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나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을 거론하는 차원에 머무른 채, 노동소설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여성 노동자의 젠더와 섹슈얼리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 역시 비평의 맹점 내지는 착시의 결과다. 이 글에서 1990년대 초 노동소설을, 당대의 주요 비평 논쟁이었던 리얼리즘 논쟁이 아닌 여성해

7) 대표적으로 다음의 논문을 참조.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또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8) 김은하, 앞의 글, 35-37면.

방문학론과 교차시켜 보는 시각과 틀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맹점 또는 착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당대 비평을 통해 담론화되지 못했던, 또는 달리 말하면 비가시화되었던 노동문학의 ‘여성노동해방’에 대한 전망을 여성해방문학론과의 교차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글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사이에 주목받기 시작한 여성 노동문학 작가 정지아, 차주옥, 이남희의 소설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텍스트들이 여성해방문학론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지점, 그리고 여성해방문학론을 노동문학과 노동운동의 영역으로 전유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본다. 특별히 이 텍스트들이 1980년대의 노동자 수기나 노동소설에 주로 등장했던 미혼 여성 노동자 대신, 기혼 여성 노동자 또는 남성 노동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의 존재를 서사 전개의 중심으로 삼았던 특징적인 설정과 그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해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참조해 분석한다.<sup>9)</sup>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들이 견뎌야 했던 정치적 억압, 자본에 의한 경제적 착취, 사회 불평등이 기존의 노동운동 영역에서 배타적으로 주장되어 온 계급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젠더와 섹슈얼리티, 연령 등이 함께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구조의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이 시기 노동소설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던 점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초 노동소설이 여성 노동자의 이중적 억압과 착취를 가시화하고, 노동자 계급의 단일한 정체성에서 탈피해 ‘여성

9) 분석 도구로서 상호교차성의 개념에 대한 정의 및 방법론 적용의 사례는 다음을 참조. 페트리샤 힐 콜린스·시르마 빌게, 이선진 역, 『상호교차성』,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54-61면. 특히 자본이 상호교차적이기 때문에 노동의 문제는 계급과 함께 인종과 젠더의 구조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질라 아이젠스타인(Zillah Eisenstein)의 주장은 노동문학에 대한 분석에서 계급과 젠더의 상호교차적인 지점을 재현하는 양상이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같은 책, 42면. 원출처는 Zillah Eisenstein, “An Alert: Capital is Intersectional: Radicalizing Piketty’s Inequality”, *The Feminist Wire*, May 26, 2014.

<http://thefeministwire.com/2014/05/alert-capital-intersectional-radicalizing-pikettyps-inequalit/>

노동자'라는 입체적인 정체성을 재정의함으로써 '여성노동해방'이라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발견하고 모색했음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여성해방문학 담론과 그것을 투사한 노동소설 작품들을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전망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기존의 노동문학·운동과 대비하며 재평가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2. 기혼 여성 노동자의 재현과 재생산 노동 영역의 가시화

1990년대 초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을 다룬 소설 작품들에서는 기혼 여성 노동자가 재현되면서, 작업장 내부의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작업장 바깥의 재생산 노동 영역에서 벌어지는 억압과 착취, 폭력의 문제 또한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한 투쟁 대상이라는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진다. 대표적으로 정지아의 「동지의 집」(『노동해방문학』 1989년 12월호)은 제목에서부터 '집'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듯 주요 무대를 작업장에서 가정으로 옮겨 결혼한 여성과 남성 노동운동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소설이다. 이른바 '노동 현장'인 작업장이나 노동자의 투쟁 현장이 아닌, 당시에는 주변으로 인식되어 왔던 재생산 노동 영역의 현장을 전경화·가시화한 것만으로도 일단 이 소설의 의의는 남다르다. 그런데 이 소설이 『노동해방문학』에 실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텍스트의 중요성은 그 이상이다. 주지하다시피 『노동해방문학』은 노동자 계급 전위의 전투적 남성성을 표방했던 매체였다. 정지아는 『노동해방문학』 문예창작부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글이나 소설을 발표했는데, 그 작품들은 가령 「햇살로 다시 서라, 친구여!」(『노동해방문학』 1989년 6·7월호)와 같이 남성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이나 자본가·관리자와의 격렬한 대립을 주요 소재로 삼는 이른바 전형적인 '노해문'식 노동소설이었다. 이러한 남성중심주의적 매체에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



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정지아는 ‘여성’ 노동자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남성중심주의와 성차별주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동지의 집」 서사의 주요 갈등은 강순의 노동조합 활동과 가사 노동을 둘러싼 강순과 기섭 부부의 의견 대립으로 이루어진다. 삼화봉제 노조 사무장을 맡고 있는 강순은 노조 위원장인 형석이 지노협을 맡고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그를 대신하여 노조 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아줄 것을 부탁받는다. 한때는 형석이 노동운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강순이지만 이제 오히려 그의 부탁 앞에서 고민하며 망설일 정도로 노동운동의 일선에서 뒤처져 있다. 그녀가 노동운동에 매진하게 되면 집안 일에 소홀해진다고 못마땅해 하는 남편 기섭이 그 망설임의 원인이다. 기섭은 그녀와 마찬가지로 노동운동가이지만 결혼 후 강순의 노조 활동에 부정적이다. 한편 작업장에서의 일과 노조 사무장의 업무,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요구되는 각종 가사 노동, 시댁 제사와 시부모님 생일 등 강순이 이미 짊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녀를 힘겹게 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소설은 강순과 기섭의 대비를 통해 같은 노동자, 노동운동가임에도 성별에 따라 노동운동의 참여도와 주어진 노동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삼화봉제 노조는 상근을 둘 수 없어 강순이 작업장 내 노동과 노조 사무장 업무를 동시에 지고 있는데, 여기에 가사 노동까지 겹쳐 삼중의 강도로 노동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그에 반해 기섭은 집에 돌아와서 강순이 밥과 설거지, 빨래를 하는 동안 자신의 노조 업무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겨우 단체교섭안 작업을 시작한 강순에게 불을 끄지 않는다고 화를 낸다. 이러한 갈등이 결혼 생활 내내 이어지면서 기섭은 강순에게 노조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강순은 기섭과의 누적된 감정적 대립과 가중되는 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노조 활동에 점점 소극적으로 임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나아가 소설은 여성과 남성 노동자 간 노동운동 참여도와 노동 강도의 이러한 비대칭을 야기하는 원인이 결혼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묘사한다. 강순과 기섭의 결혼 전 만남으로 플래시백하는 것은 그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기 위한 설정이다. 강순은 문득 결혼 전 이들 부부가 처음 만났던 파업 농성장의 기억 속 구사대에 거침없이 맞섰던 자신의 모습과 그런 그녀를 구사대로부터 구해낸 후 함께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기섭의 모습을 떠올리며 변해버린 현재의 자신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

결혼 전과 후의 이러한 대비는 단순히 남성 노동자·노동운동가의 위선과 가부장주의적 행태를 폭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기혼 여성 노동자의 가족주의적 의식의 퇴행과 한계에 대한 기존의 편향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간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여성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혼하고, 일단 결혼하여 가족을 꾸리면 아내와 어머니라는 ‘여성 본연의 위치’에 머무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들조차도 결혼과 함께 노동 현장을 떠나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결혼이 노동운동에 장애가 된다고 간주되었다.<sup>10)</sup> 또한 기혼 여성 노동자의 육아나 가사 노동이 노동운동보다 가정을 우선시하게 만들어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도 있었다. 물론 정현백이 강조하고 있듯 이러한 현상은 미혼 여성의 저임금 단순 노동력을 일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본주의 시장 메커니즘과 그에 따른 임금 차별 등의 젠더화된 노동 현실에서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sup>11)</sup> 그러나 어찌되었든 일단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 안에 포섭된 기혼 여성 노동자는 노동자의 계급적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소시민적 가족주의라는 허위의식에 매몰된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동지의 집」은 그러한 인식에 균열을 내기 위한 방편으로 생산 노동을

10) 정현백, 「여성노동자의 의식과 노동세계—노동자 수기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 편집위원회 편,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157면.

11) 위의 글, 143-144면.

둘러싼 계급 갈등과 재생산 노동을 둘러싼 젠더 갈등을 나란히 배치한다. 일견 도식적으로까지 보이는 자본가·관리자와 남편 기섭의 병치는, 기혼 여성 노동자들이 작업장과 노동 운동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그녀들의 보수적 성향이 아닌, 젠더화된 재생산 노동 영역의 여성 착취·억압 구조를 문제 삼아야 한다는 작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소설의 클라이막스에서 강순은 기섭과의 신경전 가운데 문득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는 작은 자유조차 억압하며 자신을 폭행했던 인사과장을 떠올린다. 그리고 남편 기섭이 자신에게 가하는 억압이 인사과장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

기섭은 그 인사과장이 아닌데, 우리의 적이 아닌데 왜 그때와 똑같은 허망함이 그녀를 뒤흔드는 것인지 그녀는 자기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아니었다. 지금 기섭은 결코 동지가 아니었다. 그녀의 분노는 당연했다. 일을 그만 두라니! 활동을 포기하라는 건 그 이유가 사랑의 이름을 빌린 것이든 뭐든 고기를 사주고 돈을 집어주며 웬만하면 편히 살라고 회유하던 사장과 다를 바 없었다. 예전의 그 인사과장이나 술한 사장들은 그녀가 자기 몸뚱이를 파는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짓밟았고 지금 기섭은 함께 일을 하는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녀를 짓밟는 것일 뿐이었다. …(중략)… “당신이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고도 당신이 노동 해방을 하겠다고, 착취체계를 끝장내겠다고 할 수 있어! 지금 당신 모습이 사장놈들하고 똑같다는 생각 안 해봤어? 집에만 오면 당신은 사장이 된대구!”<sup>12)</sup>

남편 기섭이 사랑을 앞세워 자신을 집에 묶어 두고 가사 노동에 전념하길 강요하는 것은 실상 강순 자신의 재생산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라

12) 정지아, 「동지의 집」, 『노동해방문학』 1989년 12월호, 444-445면.

는 인식에 도달한다. 그리고 이는 정확히 자본가인 공장 사장이 노조 투쟁을 그만두도록 회유하며 자신들의 노동력을 더욱 쉽게 착취하려 했던 행태와 동일한 패턴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생산 노동의 현장에서는 자본가의 억압·착취에 대항해 함께 투쟁하는 남편 기섭이 재생산 노동의 영역에서는 마치 자본가처럼 여성 노동자인 자신을 지배하는 남녀 노동자 간의 젠더화된 권력 관계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런데 소설 속에서 그러한 남성 노동자의 여성 노동자에 대한 가정 내 억압과 착취가 더욱 문제적인 것으로 그려지는 까닭은 그로 인해 여성 노동자가 노동과 투쟁의 현장에 설 가능성이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자본가의 억압과 착취, 폭력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투쟁의 동력이 되는 계급적 증오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라도 한다. 문제는 가정 내 남편에 의한 억압과 착취, 폭력은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라는 명목 아래 용납되거나, 쉽게 사랑의 감정으로 해소되고 마는 것이다. 강순이 남편 기섭과의 싸움을 다짐하면서도 한편으로 “기섭이 그녀를 떠밀고 나갈 때 느꼈던 분노는 더 큰 사랑의 분노였다”고 고백하는 대목은 소설의 결말이 그녀의 싸움을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들이 사랑이라는 걸림돌을 만나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sup>13)</sup>

결론적으로 이 소설은 기혼 여성 노동자의 존재와 그녀들이 재생산 노동 영역에서 겪는 불평등의 문제를 재현함으로써 노동자 계급 내에서도 기혼 여성 노동자는 젠더와 연령, 가정의 유무와 형태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이중·삼중의 억압과 착취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당시에 주로 논의되었던 노동자 계급 당파성이나 노동자 대중의 전형 또는 노동자 전위 조직을 바탕으로 한 정치 투쟁의 재현을 주장하는 노동문학론에 의거해서는 해방을 상상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13) 위의 글, 447면.

즉 계급과 젠더 불평등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해방은 그간의 노동문학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명확히 제시한다.

노동소설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이러한 새로운 문제의식은 노동 현장의 여성 노동자, 특히 기혼 여성 노동자 문제에 초점을 두기 시작한 여성해방문학론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환기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비평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의 다음과 같은 대목들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80년대 여성해방문학이 그 출발의 단초로 제기한 것이 바로 우리 사회 모순의 최대집약지라 할 수 있는 ‘여성 노동자계급의 관점’에 입각해서 문학을 보자는 것이었다. …(중략)… 주지하다시피 자본은 여성의 무보수 가사노동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남성노동자의 저임금의 물적 기반을 확보한다. 또 남성노동자의 임금만으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없어 노동시장에 나온 여성노동자들에게 가계보조적 노동이라는 이름 하에 차별적 저임금을 지불함으로써 자본은 막대한 초과이윤을 착취하고, 남성노동자의 임금은 이러한 저임금 여성노동자와의 경쟁으로 인해 다시 낮아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자본주의하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하나의 고리에 묶여 있는 것이다. …(중략)… 따라서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시각이나 노동문제가 해결되면 여성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므로 특별히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소박한 주장은 올바른 노동자계급적 관점, 즉 남녀차별은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본의 다양한 착취전략 중 하나이므로 여성문제의 해결과 노동문제의 해결을 순차적 관계가 아니라 동시적 과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쪽으로 견인해나가야 할 것이다.<sup>14)</sup>

14)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990년 봄

그럼에도 우리사회 노동자계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예컨대 남녀 차별임금, 모성보호, 탁아문제 등은 노동문학의 궤도 속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80년대의 노동문학이 계급해방을 여성해방의 문제로까지 진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략)… 이와 동시에 87년 7, 8월 노동투쟁을 통해 여성노동운동은 ‘여성’ 노동자로서의 계급적·여성해방적 각성을 동시에 획득해낼 정도로 노동운동 내 부문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제 여성운동은 미혼 여성노동자의 일시적 투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혼 여성노동자, 노동자부인까지 운동의 주체로 대두할 만큼 발전하고 있다. 특히 기혼 여성노동자들의 활발한 운동은 여성노동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여성노동운동의 성과가 노동소설에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소재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당파성의 구체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작업을 현저히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sup>15)</sup>

“여성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 입각”하여 출발한 여성해방문학론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관계, 그리고 노동자 계급과 여성 노동자의 관계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종종 예의 “노동운동 내에서 여성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운동에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시각이나 노동문제가 해결되면 여성문제도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므로 특별히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소박한 주장”을 논파해야 했다. 이러한 과제는 여성해방문학론이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재생산 노동력 착취 문제를 가시화하는 한편으로, 1968년 서구의 여성해방운동에서 촉발된 가사노동 논쟁 및 재생산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간의 이론적 논의를 참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sup>16)</sup>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여성해방문학론

호, 50-51면.

15) 위의 글, 56면.

16) 1970년대 가사노동 논쟁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재생산노동 개념에 대한 논의 및 이중체계

에서는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이 자본주의의 노동자 저임금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일부라는 논리에 입각하여 여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의 중요한 한 축임을 주장하려 했다.

이와 같이 여성해방운동 담론에서 재생산 노동의 문제를 노동해방의 중요한 과제로 편입시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혼 여성 노동자는 논의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논자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미혼 여성 노동자를 넘어서 기혼 여성 노동자와 노동자 부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여성 노동자 세력이 노동운동의 주체로 편입된 변화를 중요하게 언급하며, 앞으로 노동문학·운동에서, 그리고 여성해방문학·운동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노동 문제가 논의의 주요 초점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요컨대 여성 노동자의 해방 문제는 필연적으로 재생산 노동의 문제와 결부되고, 이는 그간 소외되어 온 기혼 여성 노동자 주체를 대변/재현하는 과제가 여성 노동자의 해방을 위해 노동문학과 여성해방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정당하게 취급되어야 할 근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 비평가들은 그간 노동소설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아내—물론 그중 대부분은 결혼 전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 후에는 일용직 노동이나 가내 수공업 등에 매달리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역시 여성 노동자에 포함할 수 있지만—가 노동자인 남편의 노동운동을 반대하거나 혹은 보조하는 모습으로 재현되어 온 경향을 비판한다.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에서는 대표적으로 정화진의 「사춘기」 속 인순이 남편 승배의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김인숙의 「함께 걷는 길」에서는 한때 남편이 노동운동 때문에 가정 일에 소홀히 했던 것을 원망했던 희재엄마가 뒤늦게 남편의 운동을 돕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점을 지적한다. 기실 이는

---

론이 전개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정성진, 「가사노동 논쟁의 재발견: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페미니즘의 결합 발전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10(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14-32면.

1980년대 노동소설 속 여성 인물의 스테레오타입이기도 했는데, 가령 방현석의 대표작 중 하나인 「내일을 여는 집」(『창작과비평』 1990년 봄호)의 여성 노동자 진숙 역시 서사 전반부에서는 복직투쟁을 하다 다친 남편 성만에게 이혼하자고 덤벼들며 그의 투쟁을 방해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하러면 그쪽이나 실컷 하지 왜 애타는 우리 애아빠는 끌어들이요”와 같은 그녀의 대사는 기혼 여성 노동자에 대한 흔한 편견인 소시민적 가족주의를 그대로 반영한다.<sup>17)</sup> 그러나 그녀 역시 결국 농성에 참여해 가족운동으로 남편을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변화한다.

노동소설 속 이러한 일관된 기혼 여성 노동자 또는 노동자 아내의 재현에 대해 논자들은 다음과 같이 비판적인 분석을 제출한다.

노동자 아내들이 처해 있는 객관적 위치—가사 노동을 통한 노동력 재생산비 부담과 값싼 차별임금을 받고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자본으로부터의 이중 수탈—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을 때에는 남편의 노동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 소시민의식으로서의 끝없는 퇴행, 여성을 주변적 위치에 묶어두려는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완강함을 그대로 용인해버리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sup>18)</sup>

여기서는 ‘노동자 아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실상은 가사 노동과 가족의 생계비를 벌기 위한 생산 활동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기혼 여성 노동자로 바꾸어 이해해도 무관할 것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기존의 노동소설에서는 기혼 여성 노동자들이 무급 가사 노동으로 재생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동시에 차별적인 임금을 받으며 자본에 의해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이중 수탈”의 사회 구조 안에 놓여 있는 “객관적 위치”를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차별주의적인

17) 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비평사, 1991, 126면.

18)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앞의 글, 60-61면.



재현의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장의 생산 노동이 이루어지는 노동현장을 주요 무대로 설정해 온 기존의 노동소설에서는 1970년대 후반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핵심 주체였던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나,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급격히 무대화된 남성 노동자들이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는 서사를 주로 다루어 왔다. 때문에 기혼 여성 노동자는 아예 재현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가족운동으로 남편을 지지해주는 식의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다. 여성해방문학론은 그러한 노동소설의 관성을 비판하며 기혼 여성 노동자 및 재생산 노동 영역에 대한 재인식과 그에 따른 문학적 재현의 갱신을 요청한다. 이는 1990년대 초 전환기의 노동소설이 ‘여성노동해방’의 전망을 다루고, 그러한 해방의 전망을 기혼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노동 영역에서부터 모색해야 하는 중요성을 수용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와 함께 실제 노동운동의 현장에서도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여성 노동자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변화가 나타났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특징 중 하나는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운동 참여였다. 1970년대 후반 민주노조 수립을 위한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저학력·저임금 미혼 여성 노동자들이 1987년에 이르면 결혼 후 가정을 이룬 기혼 여성 노동자가 되어, 오히려 결혼 전보다 열악한 환경과 불평등한 임금 조건하에서 노동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다시 한번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이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요구—노동 현장에서의 제반 차별에 대한 항의와 개선, 육아 휴직·탁아소 설치 요구—가 분출하기 시작했는데, 주로 기혼 여성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생산 노동을 사회화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요구 사항들이었다.<sup>19)</sup> 실제로 인천의 한독금속 투쟁 과정에서 결성된 ‘한독금속 부인회’와 여기에 인근 지역 부인들이 함께 참여해

19) 박석분, 「차별의 사슬을 끊고 전진하는 여성노동자운동」, 여성사연구회 편, 『여성』 3, 창작과 비평사, 1989, 132-133면.

결성된 ‘호박부인회’는 해당 지역에 무지개 어린이방을 설치하고, 재생산 노동으로부터 여성 노동자들과 노동자 부인들이 해방될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이를 사회적인 요구로 확대해 나갔다.<sup>20)</sup> 방현석의 소설은 그러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내일을 위한 집」 초반부에서는 미싱사인 아내가 공단 내 유아원 ‘내일을 위한 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해고당한 남편 성만 대신 봉제공장에 취직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이 노동소설에서 재생산 노동 영역이 무대화되기 시작한 변화에는 현실 속 기혼 여성 노동자들의 운동 역량과 참여가 확대된 배경이 자리했다.

한편 이 시기에 비단 여성해방문학론에서 기혼 여성 노동자 계급에 대해 기울인 관심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 자체에 대해 여성운동 전반에서 남다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비슷한 시기에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은 “주부, 그 막힘과 트임”이라는 주제를 기획하여 주부의 자율성을 통한 가정과 일터의 변화 및 사회 전체의 변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sup>21)</sup> 또한 『여성』 3호의 〈한국 여성의 노동 현실과 운동〉이라는 특집에서는 주부운동을 재생산 노동 영역에서의 여성운동으로 규정하며 그 현황을 검토한다. 「주부운동의 논리와 조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초보적이지만 남편의 노동쟁의에 함께 나서는 가족운동을 조직하고 이끄는 노동자 부인회나 부녀회 등의 지역 단위 주부조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부대중운동, 그리고 여성단체들이 주도하는 소비자운동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주부운동을 개괄하며, 가사 노동의 사회화 등 주부운동이 내세워야 하는 공통 의제를 논의한다.<sup>22)</sup>

이러한 변화들 속에서 노동소설이 전면화하기 시작한 기혼 여성 노동자의 존재와 그녀들의 해방을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재생산 노동 영역의

20) 위의 글, 144-145면.

21) 「편집자의 글」, 『또 하나의 문화』 6, 1990, 14-15면.

22) 이옥경, 「주부운동의 논리와 조직」, 여성사연구회 편, 『여성』 3, 창작과비평사, 1989.

문제는 노동자의 투쟁과 연대, 해방이 단순히 계급이라는 심급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한, 그러니까 계급과 젠더, 나아가 연령이나 세대, 그리고 결혼 제도 및 가족이라는 사회적 구성 단위와도 결부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문학에서의 노동자 재현의 문제 또한 훨씬 더 세분화되고 복합적·입체적이어야 한다는 인식을 형성시켰다. 이처럼 여러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조건과 구분선의 교차항으로 이루어진 여성 노동자의 삶과 투쟁에 대한 전망을 우리는 1990년대 초 노동소설의 구체적인 장면들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 3.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해방과 투쟁: 결혼과 가족의 딜레마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은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가시화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였던 권인숙이 1심 재판의 진술을 “나는 노동자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며 여성 노동자·노동운동가로서의 정체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또 권인숙과 함께 많은 여성 노동자와 노동운동가들이 1986년 인천 5.3사건의 여파로 검거되어 유치장과 구치소에서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했다.<sup>23)</sup> 그리하여 해당 사건은 “권양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많은 노동자·여성의 피맺힌 한이 응축된 사건이자, 여성의 인간적 권리를 가로막고 있는 현 풍토를 고발한 사건”으로 여겨져 여성운동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냈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성폭력의 피해자를 오히려 억압하는 한국 사회의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쟁까지 촉발되었다.<sup>24)</sup> 물론 이 사건 당시 “왜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던 노동운동권 내부의 반응에

23)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 거름, 1989, 231면.

24) 「성고문 폭로투쟁의 평가와 과제」,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우리들의 딸 권양-고문·성고문자료집 I』, 민중사, 1987, 73-76면.

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에 가해지는 폭력과 억압, 착취는 여전히 노동운동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다.<sup>25)</sup> 그러나 여성운동 측에서 그러한 노동운동 지도부의 태도에 대해, 그리고 대중의 분노와 동정이 순결을 훼손당한 여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만큼 낮은 수준의 한국 사회 성 인식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그간 순결 이데올로기에 억압 및 은폐되어 있었던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문제가 가시화되었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차주옥의 소설 『함께 가자 우리』(실천문학사, 1990)가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양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의 주체로 거듭나는 과정을 서사의 큰 틀로 잡고, 그 안에서 그녀들이 일상적으로 겪어야 했던 섹슈얼리티의 억압, 착취, 폭력, 그리고 성차별을 서사 전개의 주요 사건으로 재현한다. 주인공인 계순은 학출 노동운동가인 경철과의 연애, 동거, 그리고 낙태를 경험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난 후 오히려 어린 시다와 미싱사 노동자들을 깊이 이해하고 이끌어 주는 노동운동의 주체로 재탄생한다. 또 번영섬유 반장인 선금은 공장 사장 아들 강인구에게 연애를 빙자한 성폭행을 당했던 기억에 괴로워하는 인물로, 소설 말미에 이르면 마침내 그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상처를 극복하면서 노조준비위원회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재현이 노동소설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인 것은 오랫동안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가 이중적으로 억압되어 온 사정에서 기인한다. 먼저는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배 담론이 여성 노동자들의 여성성을 박탈하고 “무성화된 노동력”으로 취급해 왔던 점을 거론할 수 있다.<sup>27)</sup> 이남희의 「

25) 위의 글, 95-96면.

26)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을 둘러싼 순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조. 위의 글, 75-76면.

목마른 것은 싫다」(『창작과비평』 1990년 겨울호)에서는 임신한 말득이 관리자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의 여성 노동자들에게서도 냉대와 모욕을 당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작업장에서 말득은 생산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고 호되게 당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작업에서 제외하려는 분위기에 둘러싸여 고립되는데, 이는 그녀가 처녀의 몸으로 남자와 동거하고 임신했기 때문이다.

말득이는 몹시 힘들어하였다. 몸매가 가늘어 불러오는 배를 감추기 어려웠을뿐더러 입덧이니 현기증이니 무기력이니 하는 임신의 징후들이 유난스러웠다. 끽끔거리며 생산속도를 따라가려고 기를 쓰는 말득이의 모습은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싶을 만큼 안쓰러웠다. 현장에는 결혼한 부인들이 꽤 있어 그런 말득이의 형편을 동정할 것 같았는데 의외로 냉담했다. 일의 속도가 느려진다고 말득이를 제쳐두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정상무가 하루 결근한 걸 가지고 말득이를 심하게 닦아세운 것은 그런 현장의 분위기를 예민하게 감지한 때문일 터였다. …(중략)… “왜 말도 못하고 사니? 그 자리에서 당당히 따질 수 없어? 분하면 지금이라도 항의를 하든지. 처녀가 애를 뺐건 말건 지가 무슨 상관이야. 일하는 대로 월급이나 주면 그만이지 언제 저더러 사생활을 간섭해달랬어?”<sup>27)</sup>

현장 관리자 정상무는 말득의 느린 생산 속도와 결근을 문제 삼으며 그녀의 ‘문란한 사생활’에 대해 모욕적인 비난을 일삼는다. 말득의 임신은 현장의 기혼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멸시의 대상이 된다. 그들은 임신한 몸의 변화를 잘 알고 겪어 보았으니 말득에게 최소한의 동정이라도 쏟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말득을 작업에서 제쳐 두려는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27)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역사가』, 이매진, 2006, 546면.

28) 이남희, 「목마른 것은 싫다」, 『창작과비평』 1990년 12월호, 213-214면.

물론 미혼 여성 노동자의 임신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여성의 순결과 정조를 강조하는 사회 전반의 도덕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여성 노동자에게는 그러한 도덕적 순결 이데올로기가 여성 노동자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자본의 논리를 따라 작동하는 것이기도 했다. 고용주들이 작업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교육 및 도덕 교육을 제공했던 것은 여성 노동자들의 성적 욕망이 적절히 통제되지 않으면 동거나 성매매에 빠지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29)</sup> 그러한 ‘일탈’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의 ‘이탈’을 의미했다. 순결 이데올로기 이면에는 이와 같이 여성 노동자의 노동력 통제라는 또 다른 목적이 자리하고 있었다.

민중을 도덕적으로 무결한 존재로 재현한 민족·민중(문학)운동의 대항 담론 역시 순결 이데올로기를 작동시켜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기도 했다. 이재현이 지적했듯 전환기의 변화를 겪기 전까지 노동소설에서 노동자 간의 사랑은 동성 간은 물론 이성 간의 관계에서도 주로 동지애로 그려졌는데, 이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노동문학의 억압적인 일면을 드러내는 지점이다.<sup>30)</sup> 여기에는 남녀 간의 이성애적 사랑은 대중문화의 통속적인 감상주의로 오염된 것이라거나 저속하고 타락한 것이라는 관념이 개입되어 있었다.<sup>31)</sup> 그러한 남녀 간의 이성애와 달리, 노동자의 사랑은 동지애로 승화되어야 하는 숭고한 것이어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연애나 동거, 임신 등은 노동소설에서 재현되기 어려운 소재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여성해방운동의 영역에서도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1980년대 말 여성해방론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것은 여성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결혼 후 퇴직 제도의 불합리성, ‘모성 보호’ 등이었다. 가령 『여성』 3호의 ‘한국여성의 노동현실과

29) 김원, 앞의 책, 563면.

30) 이재현, 앞의 글, 250면.

31) 위의 글, 같은 면.

운동' 특징은 여성 노동자들의 의식, 운동 조직, 차별적 저임금, 건강 문제와 연관된 산업 재해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여성운동과 문학』 1호에는 여성 노동자들의 활동 기초 자료로 사용된 「여성노동자의 올바른 삶을 위해」라는 글이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도 중점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가부장주의의 억압이다.<sup>32)</sup> 작업장에서 일어났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분석과 비판 대신 “관리자들이 널린 곳감 따먹듯 여성노동자들을 돌아가며 강간하는 것이 너무 흔한 일”이었다는 노골적인 언급으로 처리하고 넘어갈 뿐이다.<sup>33)</sup> 또한 여성 노동자의 측면에서 성차별 문제를 다루는 일은 많았지만, 성폭력 문제는 여성 전체를 포괄하여 다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sup>34)</sup>

그러나 가장 문제적인 것은 여성 노동자를 정상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는 중산층 여성이나 여학생과 구분하여 동거를 일삼는 문란한 성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작업장에서 남성 노동자와 관리자들의 성적 유린에 노출되어 타락 및 훼손된 존재로 간주하는 사회적 낙인이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여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규율·억압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 여성 노동자들은 더욱 쉽게 성폭력·성착취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었다. 다분히 계몽적인 의도와 성격을 띠고 있는 차주옥의 소설에서 학출 활동가들의 목소리로 여성 노동자의 성적 타락이 남성 노동자에 비해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교훈’을 제공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봉제공장은 너무하더라. 우리 공장 제일 어린 애가 열네 살짜

32) 「노동운동자료—여성노동자의 올바른 삶을 위해」,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 편, 『여성운동과 문학』 1, 실천문학사, 1988.

33) 위의 글, 320면.

34) 가령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순결 이데올로기의 폐해, 남녀 차별적인 성 윤리를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살펴볼 수 있다. 황경숙, 「보이지 않는 강제—직장 내 성폭력」, 『여성과 사회』 2, 한국여성연구소, 1991.

리 시다 엔데 그 애가 어제 남자애랑 잤다는 거야. 그 남자애는 몇 살인 줄 아니? 열일곱이야.” …(중략)… “노동자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열띤 토론을 막 벌이려고 했던 참이야.”

“성문제. 좋지 좋아. 요즘 골치 아픈 일이 많았는데, 내가 그 문제라면 일가견이 있지.”

“네가 왜 그리 열을 내고 달라드니?”

옥희가 영하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눈을 흘기는 시늉을 해보었다.

방금 한 이야기를 미자가 영하에게 일러주었다.

“그런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될까? 나도 직접 들은 건데 점심시간에 병원 가서 애 떼고 그러고 와서 일한대. 오후 시간에 빠지면 애들이 알까 봐.”

“노동자들이 잔업에 철야에 일도 많지도 하지만 설사 시간이 난다 하더라도 돈도 안 들이고 재미있게 즐길 만한 문화 공간이 전혀 없잖아. 그러니 애들이 월급이라도 타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디스코 텍이더라구. 거기야 정말 뻥한 곳이잖아. 조명이 정신없이 돌아가고 좁은 공간에서 남자 여자들 부딪쳐가며 몸을 흔들어대다 보면 그 지긋지긋한 자신의 현실도 잊을 수 있고 남자들이 몇 번 접근이라도 하면 못 이긴 척하고 거기에 응하게 되고…….”

“정에 굶주려서도 그렇지. 부모 형제 떠나서 낯선 객지에 돈 몇 푼 벌겠다고 왔지만 가족들처럼 관심이나 제대로 가져주는 사람이 있나, 아프다고 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있나. 그러니 어떻게든 남자라도 사귀어 정이라도 주고 받으려고 하게 되지.”

“뽀뽀뽀해도 이건 사회적인 문제지.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남녀 간의 사랑에만 쏟게 만들잖아. 라디오만 틀면 맨날 사랑타령이고 …(중략)… 이젠 순전히 국민을 생각이라곤 눈꼽만큼도 안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지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윗대가리 놈들의 국민 기만책인 거야.”

“결론은 결국 이놈의 세상을 뒤집자는 거 아냐, 그래, 그 방법 외에 방법이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 (후략)



...”<sup>35)</sup>

위의 대목에서도 섹슈얼리티 문제마저 노동자 계급적 시각으로 환원하여 해결책을 도출하는 노동소설 특유의 도식성이 엿보이긴 하지만, 세간에 퍼져 있는 여성 노동자의 동거, 임신, 낙태 문제의 배경에 자리한 노동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점은 주의를 끈다. 단순히 문란함이나 일탈, 도덕적 타락으로 치부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홀로 도시에 상경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생존해야 하는 여성 노동자의 사회·문화적인 박탈을 섹슈얼리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문제는 순결 이데올로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임을 지적한다.

물론 여기에서도 순결 이데올로기 자체를 논파하지 못하는 한계가 확인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해방에 대해 중산층 여성이나 여대생과 동일하게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여성 노동자의 계급적 조건에 내재함을 시사하고 있는 시각이다. 여성 노동자들이 동거에 들어가 임신과 낙태를 겪는 문제는 여성 ‘노동자’ 계급에서 결혼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 계층의 피라미드 최하층에 위치한 여성 노동자들이 고향과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착취와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울타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어떻게든 남자라도 사귀어 정이라도 주고받으려고 하게 되지”라는 말은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이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착취와 폭력,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과 낙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의 유일한 사회적 제도로서 결혼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갈망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백인 중산층 여성에게 결혼과 가족은 가

35) 차주옥, 『함께 가자 우리』, 실천문학사, 1990, 39-40면.

정주부와 어머니 역할 안으로 가둬두는 억압적인 가부장주의 제도이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에게는 가족이 “지배 사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어물이자 사회에서 정체성을 끊임없이 공격받는 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요새가 되어준”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36)</sup> 순결 이데올로기에 의해 여성이 섹슈얼리티를 억압당하는 것은 같으나, 계급이라는 분할선 다른 한편에서 여성 노동자는 오히려 가부장주의의 온상인 가정으로 돌아가 아내와 어머니의 성역할을 얻음으로써 여성 노동자에게 더욱 쉽게 가해졌던 각종 성폭력이나 성적 대상화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차이를 갖는다.

그러나 노동소설은 여성 노동자가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른 계층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난망한 일임을 보여주는 것도 빠트리지 않는다. 차주옥과 이남희의 소설 속 주인공 여성 노동자는 결혼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동거하던 남성과 헤어져 낙태를 하거나 미혼모의 길을 선택한다. 가족을 이루지 못한 여성 노동자는 이제 현실적인 경제 문제에 부딪힌다. 낙태 수술 후 버스를 탈 돈조차 없는 계순이나 임신 증상으로 몸져 누운 집에 먹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말뜰에게 해방은 이제 다시 젠더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다.

아마 남동생들의 의식 깊은 곳에는 여자란 아무리 잘났어도 남자보다는 못한 것, 남자의 필요에 따라 양보하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으로 길들여져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뒤통다끼리도 해주고 불필요하면 비켜주고 남자를 위해 있는 것, 사람이기보다 도구, 엄마나 누이가 다 그랬으니까. 교육을 받아도 어려서부터 길들여진 의식은 흔적을 남긴다.

연애는 동정이 아닙니다. 동정이나 연민으로 여자를 사귄 남자가 어디

36) 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교차성 ×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34-35면.

있겠습니까?

쌀쌀맞았을지는 몰라도 그 남자의 말은 옳다. 연애는 동등한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협상이 그렇듯이, 힘의 균형이 깨어지면 무너진다. 그렇다면 여자를 남자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게 길들여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기적이다. 기적은 믿기 어렵다. 그래서 남자들은 사랑한다면서도 자주 두리번거리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적은 드문 일이 아니다. 기적도 수고를 필요로 한다. 싸우지 않고 선 인간다움을 지킬 수 없는 그물 아래선 연애도 전쟁이겠지. 하긴 한 인간이 만들어진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역시 그러하다. …(중략)…

“너무 값싸게 너를 선물해서야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거야. 선물은 의심스럽지. 세계의 절반은 나라는 노래도 있잖아. 남자로 하여금 세계의 절반인 여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돼. 거기서 사랑도 시작되는 거라구. 마치 노동자가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자의 세계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싸우는 것처럼, 이젠 서동호에게 미련을 갖지 마. 아기 문제도 현실에 발붙여서 판단을 하고 말야.”

“미련은 없어. 아기는 다른 문제야.”

말득이는 중얼거렸다.

“어쨌든 맥없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을 거지?” …(중략)…

“내일이라도 회사에 나올 수 있거든 나와. 너도 비껴가지 않고 부딪치는 걸 해봐야 해. 그리고 이 어중만 동네에서도 나오고, 아기를 낳든 안 낳든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냐?”<sup>37)</sup>

필남은 임신한 말득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났던 서동호에게서 “연애는 동정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남녀 간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힘의 균형에 대해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뒤치다꺼리 해주고 불필요하면 비껴주는 식으로 존재해 온 여자는 애초부터 남자와 불균형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37) 이남희, 앞의 글, 226-227면.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이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며, 거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말득에게 전한다.

물론 이제 서동호와 헤어진 말득은 자기 자신과 뱃속 아이의 생존을 위해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함께 가자 우리』의 계순이 낙태 후 유사-결혼·가족의 공간에서 나와 다시 돌아간 공장에서 다시 한번 노동조합 수립을 위한 투쟁에 뛰어들었던 것처럼, 말득 역시 여성 노동자로서 다시 노동 현장에 나와 부딪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 일에서 삶의 이유를 느끼는 필남과 달리 말득은 싸움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부딪쳐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생겼다. 미혼모에게 쏟아지는 사회적인 차별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겠다는 자신의 욕망과 성적·재생산적 권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자로서의 현실을 살아내야 한다.

한편 이 소설에서 미혼모로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는 말득의 결정이 모성애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여성 노동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소설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에서 필남은 “왜 사람들은 자꾸 아기를 낳는 거지”라는 말을 반복하며, 끝끝내 아이를 낳겠다는 말득과 나란히 배치된다. 소설은 미혼모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나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모두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당대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용감하게 자신의 성적·재생산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 두 여성 노동자의 형상을 통해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해방에 대한 전망을 암시한다. 소설은 그 전망을 구체화하지 않고 끝나지만, 필남과 말득과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여성 노동자들은 여성으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정”받기 위해, 또한 진정한 성적 해방을 위해,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를 꿈꾸기보다 ‘힘의 균형’을 위한 싸움으로 향해 갈 것임을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우리는 실로 1990년대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그것을 목도했다.

#### 4. 결론: 노동자 계급을 젠더로 미분하기

1990년대 초 노동소설이 여성해방문학·운동의 담론을 전유하여 어떠한 전망을 펼쳤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후 노동소설은 현실과 유리된 리얼리즘 논쟁 속에 뒤엎혀 전망 부재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성해방문학론과 교차하는 여성 노동문학 작가들의 소설 속에서는 현실과 밀착된 기혼 여성 노동자의 재생산 노동 문제나, 여성 노동자의 섹슈얼리티 해방과 투쟁이라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문제를 노동소설의 상상력이 새롭게 재현해야 할 전망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재현 그 자체만으로도 계급이라는 심급의 억압 아래에 다양성과 차이를 억압당해 온 노동자 계급을 젠더로 미분하는 효과를 낳았다.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이 지나가버린 1990년대 문학에서 노동소설이 무대화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어쨌든 그것이 사회주의와 혁명, 1980년대와 민주화운동이라는 거대 담론의 후광 속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그것에 종속된 양식은 아니었음을 1990년대 초 노동소설이 제시한 ‘여성노동해방’의 전망 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 노동자의 계급 내 젠더 불평등이나 섹슈얼리티 문제는 이후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발전하는 여성문학, 페미니즘 문학과 접점을 이루며 1990년대와의 연결 고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여성 노동자라는 매개항은 1980년대와 1990년대 문학 사이의 단절이라는 문학사적인 통념을 뛰어넘어 1980년대 노동문학과 1990년대 여성문학을 잇는 한편, 계급 속 젠더와 섹슈얼리티, 여성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교차하여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또 하나의 문화 동인 편, 『주부, 그 막힘과 트임—또 하나의 문화 제6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1990.
- 민족문학작가회의 여성문학분과위원회 편, 『여성운동과 문학』 1, 실천문학사, 1988.
- 방현석, 『내일을 여는 집』, 창작과비평사, 1991.
- 여성사연구회 편, 『여성』 1, 창작과비평사, 1985.
- \_\_\_\_\_, 『여성』 3, 창작과비평사, 1988.
- 이남희, 「목마른 것은 싫다」, 『창작과비평』 1990년 12월호.
- 정지아, 「동지의 집」, 『노동해방문학』 1989년 12월호.
- 차주옥, 『함께 가자 우리』, 실천문학사, 1990.

### 2. 논저

- 권인숙, 『하나의 벽을 넘어서』, 거름, 1989.
- 김원, 『여공 1970—그녀들의 역사가』, 이매진, 2006.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15-49면.
-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9-40면.
-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면.
-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또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365-404면.
- 이선옥, 「1980년대 여성운동 잡지와 문학논쟁의 의미」, 『여성문학연구』 43,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7-36면.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409-454면.
- 정성진, 「가사노동 논쟁의 재발견: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과 페미니즘의 결합 발전을 위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10(1),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271-304면.
-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구보학보』 27, 구보학회, 2021, 271-304면.

패트리샤 힐 콜린스·시르마 빌게, 이선진 역, 『상호교차성』, 부산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편, 『우리들의 딸 권양—고문·성고문자료집 I』, 민중사, 1987,

한우리·김보명·나영·황주영, 『교차성 ×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2018.

### 3. 기타

김영혜·오은영, 「노동문학에 그려진 여성과 사랑—최근 장편노동소설을 중심으로」, 『오늘의 문예비평』 1991년 가을호, 83-96면.

윤지관, 「머리글: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 1990년 가을호, 200-206면.

이재현, 「희망과 연대의 존재로서 노동자계급의 삶과 희망—90년대 노동소설의 몇 가지 흐름을 중심으로」, 『실천문학』 1992년 여름호, 246-262면.

이명호·김희숙·김양선, 「여성해방문학론에서 본 80년대의 문학」, 『창작과비평』 1990년 봄호, 48-74면.

황경숙, 「보이지 않는 강제—직장 내 성폭력」, 『여성과 사회』 2, 한국여성연구소, 1991, 228-232면.

<Abstract>

Women Workers, Reproductive Work, and Family  
– Labor Literature X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the early  
1990s

Bae, Haeun

The subject of love and woman in the early 1990s labor literature uncovers and casts light upon sexual violation and exploitation among women workers, gender inequality in marriage, and reproductive work in family. "Tongjiui Jip(home of comrades)" written by Jeong Ji-a expands the scope of labor literature to the story of married women workers in the domain of reproductive work by juxtaposing a male worker character's control over a woman with the capitalist exploitation over workers. In their fictions, Yi Nam-hee and Cha Ju-ok focus on representing women workers' sexuality in common-law marriages to describe the double bind in their sexuality and socio-cultural deprivation. Furthermore, indicat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ddle class and the working-class women's sexuality, labor literature in the early 1990s employs the theoretical idea of intersectionality. Furthermore, in the intersection of feminism and labor literature, female writers' fictions introduce a new feminist prospect to the 1990s' labor literature lost in the ruins of the collapse of socialism, which leads to a criss-cross of gender and sexuality in class.

Key words: women’s liberation movement in Korea, 1990s’ labor literature, women workers, reproductive work, sexuality, feminist literature, intersectionality



투 고 일: 2021년 8월 31일

심 사 일: 2021년 9월 13일

계재확정일: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2021년 9월 24일